

최악 취업난...지역대학 도서관 '복사통'

취준생들로 가득 빈자리 찾기 힘들어 면학 열기에 들뜬 연말 분위기 '실종'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광주지역 각 대학도서관엔 졸업예정자 등 취업준비생들로 복사통을 이루고 있다.

방학 분위기와 연말연시 등 들뜬 분위기는 찾아 볼 수 없고, 취업성공을 위해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일반 기업체전형 준비생 그리고 졸업을 미룬 재학생들까지 도서관에서 열정을 쏟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면학 열기가 뜨겁다.

11일 광주지역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몇해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연말 등 겨울방학을 앞두고 해외여행이나 단기연수 등 자기계발 계획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최악의 취업난을 겪으면서 최근엔 대학도서관에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학교에서 마련한 특강을 듣는 등 취업준비에 '몰인'하는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내에서 그룹스터디를 만들어 취업준비를 하거나, 학교도서관에서 홀로 책과 씨름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는 등 취업열기가 '전성시대'를 방불케 한다.

실제 전남대 중앙도서관 500석 규모의 열람실엔 빈 좌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며 취업 문을 두드리고 있다.

책상 위엔 각종 공무원 서적과 토익 및 토플 그리고 대기업 적성검사를 위한 각종 문제집들이 가득하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1~2학년 학생들까지 취업전쟁에 내몰려 학교에서 개설되는 토익강좌나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스펙을 쌓고 있다.

특히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졸업을 미룬 일명 '대학 5학년' 취업준비생들도 눈에 띈다.

3년째 경찰공무원시험에도 도전하고



11일 오후 전남대 도서관의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있는 정 모씨(28)는 "취업을 위해 졸업을 몇차례 미뤘다"며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는 사치에 불과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남들에게 12월 연말과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시간이겠지만, 수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괴롭고 힘든 날이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정씨처럼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른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한 재학생 1,000여명에 이르고,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지역 대학까지 포함하면 졸업유예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졸업예정자 박 모씨(28)는 "졸업까진 앞으로 한 학기가 남았지만 취업대란에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겨울엔 대학 도서관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이 모씨(27)도 "학점은 이미 채워 졸업엔 문제가 없지만, 곧바로 백수신세로 전락해 졸업장 받기가 두려워 취업 뒤 졸업할 예정이다"며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을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취업준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4	흑산도	4~6
담양	-3~5	구례	-2~4
화순	-3~4	곡성	-4~4
영광	-3~4	완도	1~6
함평	-2~6	강진	-1~5
무안	-1~5	장흥	-1~5
영암	-2~5	해남	-1~5
진도	1~5	고흥	-1~6
신안	-1~5	보성	-3~4

일출 07:31 일몰 17:21
월출 11:08 월몰 21:42

목포	만조 04:38 17:23	여수	만조 12:01 23:58
	간조 09:58 22:46		간조 05:18 18:1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윤장현 전 시장 이틀째 검찰 조사

변호인 "수사 불공정...메시지, 전체적 맥락 봐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과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날에 이어 1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전날 14시간에 걸친 1차 조사에서 채용청탁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는 상당부분 인정했으나,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출두하면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밝혀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금 4억5,000만원 중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범 김 모씨(49) 계좌에 입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서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답했다.

금용권에서 대출을 받은 나머지 3

억5,000만원은 윤 전 시장 본인 이름으로 김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출마 선언 후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다. 제가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 82만원만 받고 살아야 하는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김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단락들만 공개해 범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윤 전 시장 전화의 메시지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블랙아이스'에 출근길 사고 잇따라

고가도로·다리 결빙구간서 차량 충돌 다발

광주와 전남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생긴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1일 경찰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화순군 화순읍 대리 능주방면 고가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

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31·여)가 경상을 입었다.

앞서 오전 7시 50분께는 장흥군 장동면 영암~순천 고속도로 장동2터널 인근 영암방면 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51)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1t 트럭이 5t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승

용차·SUV 등 차량 15대가 5차례에 걸쳐 잇따라 추돌하며 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26분께는 화순군 화순읍 나릿재 터널 인근 화순방면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양(13)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새벽 사이 내린 진눈개비에 따른 도로 '블랙아이스'로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광민 기자

"네가 음주운전 신고했지"...주민 폭행 6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주민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폭행 등)로 박 모씨(6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7시 14분께 서구 삼촌동 한 원룸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차를 빼달라는 정 모씨(32) 요구에 음주상태로 운

전하고 이를 신고한 정씨를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종찬 기자

누워만 있어도 노폐물이 펑펑!

100% 자연열! 편백효소 찜질!

"면역력은 쭉~욱! 노폐물 쭉~악! 다이어트와 힐링을 한번에!"

편백나라 **호소공**

예약문의 062) **372-5888**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건너편 동양사우나 2층

25 WELLNESS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각 방송국에서 절찬 소개된 편백효소찜질의 효과

체온도 올리면 자연면역치유력이 5배증가한다?
미생물의 자연열에 의한 1.체온상승에 의한 면역력 증강 효과
2.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배독효과 3.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는 기혈작용
4. 전신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뜸효과

편백나라 호소공 5코스

1. 편백효소욕(15분) 2. 기계마사지(15분)
3. 편백 적외선 반신 욕(20분) 4. 파라린, 족욕 5. 허브찜질

편백나라 호소공!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 "웰니스 25"선정 (광주 단 1곳 선정) 기념 세일!

웰니스25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 25곳 선정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체인·가맹점문의

※ 광주지점 :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각 1개소
※ 전남북지점 : 여수, 광양, 담양, 화순, 나주, 목포, 영광, 전주 각 1개소
150평이상 사업면적

문의전화 **010-9282-8088**